

대 회 사

한국 대표단을 따스한 환영의 마음으로 맞이해주신 미야바야시 스님을 비롯한 일본 불교계 여러분께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일 양국 불교계의 문화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시작된 본 대회가 33차에 이르렀습니다. 상호 불교 문화의 이해를 위해 노력한 지난 서른 두번의 양국 교류가 밑거름되어 금번 33차 대회가 개최됨을 알기에 오늘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소중한 대회의 의미를 살려 많은 의견이 교류되는 성과있는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불교계는 지난 일본 국민과 불교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웃 나라의 아픔에 한국 불교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은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불교적 지성과 성숙한 국민성으로 난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해 가고 있는 일본 국민과 불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다른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저변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행복을 위해 공헌하는 모습을 한국에서도 만들어가기 위해 쉽없이 정진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일 불교계는 양국의 불교문화활성화를 위한 고견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자리하였습니다. 문화의 교류를 위한 바탕을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국의 불교계는 만남의 의

미를 넘어 양국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대회의 주제인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 종단간 교류, 사찰간 교류, 개인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층 교류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코쿠에서 느낀 포근함을 마음에 담아가 양국의 불교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진력하신 미야바야시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대회 회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 승